

‘不二’ 깨달음으로 佛·儒 경계를 넘다

역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 백곡 김득신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은 조선 중기의 문장가로, 다수의 승려들과 교류하였을 뿐 아니라 불교에도 상당한 식견을 드러냈던 인물이다.

그가 천기(天機)를 얻어 조화로운 시격(詩格)을 이루게 된 것은 다독(多讀)을 통한 그의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전해진다. 특히 어려서 천 연두를 앓았던 그는 노둔하여 여러 번 책을 읽어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행장초(行狀草)’와 ‘묘비명(墓碑銘)’에는 나이 10살이 되어 서야 비로소 부친에게 ‘사략(史略)’을 배웠지만 3일이 지나도록 읽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병으로 인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천하의 문장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바로 그의 학문에 대한 열의와 끈기, 그리고 다독(多讀)을 통해 이룩한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부친의 독려와 보살핌 또한 그의 성취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셈이다. 원래 그는 당대 명문가였던 안동김씨의 후손이었다. 경상 감사(慶尙監司)를 지냈던 안흥군(安興君) 김치(金祿)가 그의 부친이며, 외숙 목서름도 문장에 밝았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그 또한 과거(科擧)를 통해 가문을 빛내고자 하였다.

1626년에 부친의 삼년상을 마친 그는 이 해 가을 문사(文辭) 시험에서 외숙 목서름으로부터 시재(詩才)를 인정받은 후, 청운의 꿈을 품고 산사와 경향을 두루 유람하며 과거 공부에 매진한다.

문장(文章)으로 세상에 드러난 시기도 이 무렵이다. 태당 이식(澤堂 李植, 1584~1647)은 그의 문장이 “지금에 제일(當今第一)”이라 칭찬하였으며 시문에 밝았던 그는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백의의 제술관으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이는 그의 글 솜씨가 당대에 최고였음을 드러낸다.

이처럼 글에 능했던 그였지만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한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부친이 “60세까지는 과거에 응해 보라”는 유언에 따라 더욱 공부에 매진하여 1662년 3월, 드디어 증광시 병과에 19위로 급제한다. 실로 그가 품은 청운의 꿈은 59세에 이루어진 셈이니 그의 불교의 의지와 도전 정신은 후인의 모범이 될 만하다. 아무튼 그가 세상에 문장가로 이름을 날린 일과 등과(登科)는 모두 독서의 힘이었다. 그가 쓴 <종남총지(終南叢志)>에는 자신의 서재를 ‘역만재(億萬齋)’라고 부른 연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본래 노둔(魯鈍)하여 다른 사람보다 배나 많이 읽었으니 <사기>, <한서>, <한유문집>, <유자후문집> 같은 것은 모두 손수 필사하여 만여 차례를 읽었다. 그 중에 <백이전>을 가장 좋아하여 일억 삼천 번을 읽고 드디어 서재 이름을 ‘역만재’라 하고 이어 절구 1수를 지어 ‘한, 송, 당, 진의 글들을 골고루 들쳐가라(披羅漢宋唐秦文)/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일만 번씩을 읽었네(口誦讀過一萬番)/ 가장 좋아하는 백이전의 기괴한 문체는(最愛伯夷奇怪體/

蜚蜚 나는 기운이 구름에 뛰어오를 듯하네(飄飄逸氣欲凌雲) 라고 하였다.

김득신이 <백이전>을 좋아했던 건 사마천의 개한 문장의 기상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의 시는 사마천의 <사기>뿐 아니라 <한서>나 당대의 한유나 유종원의 글을 토대로 삼았음을 나타낸다.

실제 그의 <종남총지(終南叢志)>에는 어무적(魚無迹), 이행(李荇, 1478~1534), 정사룡(鄭士龍, 1491~1570), 정철(鄭澈, 1536~1593), 권필(權 5 1569~1612) 같은 전대의 시인뿐 아니라 남용의(南龍翼, 1628~1692), 김석주(金錫胄, 1634~1684), 홍만중(洪萬宗, 1643~1725) 등, 그와 동시대의 살았던 문장가의 시를 뽑아 비평을 남겼다. 후일 그를 비평가로 평가하는 것은 이런 저술 때문이라 하겠다.

한편 김득신과 승려의 교류는 그가 과거 공부를 할 때에 여러 산사를 다니며 공부했던 전례에서 기인된 듯하다. 비교적 여러 사찰을 순례하고 승려들과도 사귀었던 그는 승려들에게 준 여러 편의 시를 남겼는데 이는 그의 <백곡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드러낸 시문은 여러 편이 전해진다. 우선 ‘정 승려에게 주다(贈正上人)’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상 무자를 화두로 삼아(無字須常念) 의심덩어리가 마치 불덩이 같네(疑團似火團) 만약 사악한 악마를 물리칠 수 있다면(邪魔如可) 진어(眞如)로 응착하여 바르게 하리(一物的應看)

무자(無字)는 일찍이 조주 선사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라고 물었던 한 수행승에게 “무(無)”라고 답한 것에서 연유된 것이다. 이후 대혜 스님에 의해 무자화두가 참선의 방편으로 제시되면서 고려에서는 지눌(知訥)이 무자화두로 수행승들을 지도했다고 하고 혜심(慧諤) 또한 <구자무불성화간병론(狗子無佛性話揀病論)>을 지어 화두 참선법을 제시한 바가 있다. 특히 휴정의 <선가귀감(禪家龜鑑)>에는 무자화두를 경절문(徑截門)의 방편으로 삼아 수행하도록 권하였다.

따라서 김득신은 이러한 선종의 화두 참선에 대한 내력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의단(義團)이 “마치 불덩이 같네(疑團似火團)”라고 한 것이며 “진어(眞如)로 응착하여 바르게 하리라”라고 말한 것이다. 아울러 그의 ‘패척 승려에게 주다(贈具上人)’에는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이나 조주선사의 서리 발 같은 선기(禪機)를 이렇게 언급하였다.

조주선사의 서리 발 같은 검을 잡았는가(趙州霜劍把耶) 육호지랑, 이것이 무엇인가(六戶支那奈此何) 몸을 돌려 문득 무심지로 들어가니(身頓入無心地) 생애가 잘나임을 알겠네(識羅娘生一刹那)



조선 중기 문장가였던 김득신은 독서광으로도 유명했다. 어렸을 때에는 문리가 밝지 않았고, 20세가 되어 문장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끊임없는 독서로 후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문장가가 됐다. 그는 불교에도 높은 식견을 가졌다. 사진은 김득신의 일대기를 조명했던 KBS 미니 다큐 <한국의 유산>의 한 장면.

불교 식견 높았던 문장이이자

‘역만재’ 서재 가졌던 독서광

금강산·오대산 스님들과 교류

<백곡집>에 정황담은 시 남겨

“석가·유가 나누지 말라” 설파

곧바로 비어(유마거사의 거처지)의 불이문을 밟고(直 毗耶不二門)

내 억지로 만든 (세상의) 이름을 미워한다고

하리라(性憎名字強云云)

모름지기 중요한 것은 자유자재하게 만난

곳에서(要須自在相逢處)

석가나 유가이니 하는 구역으로 나누지 말라

(儒釋封疆且莫分)

그는 분명 불가의 불이(不二)법문을 능히 이해(了解)했던 유자(儒者)였다. 그러기에 무심지(無心地)와 “곧바로 비어(유마거사의 거처지)의 불이문을 밟고(直 毗耶不二門)”라는 불교의 심오한 뜻을 언급했을 것이다.

그가 수많은 책을 섭렵하면서, 공맹(孔孟)에만 국한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고승(高僧)에 득도의 일갈(一喝)을 열독했을 것이며 <도덕경>이나 <남화경>도 그의 서거를 장식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모름지기 중요한 것은 자유자재하게 서로 만난 곳에서(要須自在相逢處)/ 석가나 유가이니 하는 구역으로 나누지 말라(儒釋封疆且莫分)”고 말했다. 실로 그는 한때는 노둔했지만 다독(多讀)을 통해 무변(無邊)을 품었고 불교를 알았기에 거침이 없었던 선비였을 것이다.

그가 장수사에서 승려가 준 짚신에 감사하며



김득신이 같은 책을 수만 번 읽었던 괴산의 취묵당. 지금은 기와가 올라가 있지만, 본래는 초가였다.

지은 ‘사장수사승증장혜(謝長水寺僧贈芒鞋)’는 다음과 같다.

장수사 스님이 무슨 물건을 주었는가

(僧從岳寺贈何物)

돌아가는 북쪽에 겨우 두루 좋은 짚신이라

(芒屨偏宜北客歸)

내일 두메의 높고 낮은 길에(明日峽中高下路)

숲과 돌길을 밟으며 저너늘이 다하리

(穿林踏石盡斜暉)

장수사는 함양 안의 소재한 고찰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 때 그가 영남의 선주(善州)에서 머문 적이 있었다. 아무튼 그가 돌아갈 무렵 장수사 승려가 북쪽으로 돌아가는 김득신을 위해 짚신을 선물했던가보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장수사 승려에게 준 이 시는 그의 시적 감수성이 오롯이 드러난다.

한편 그가 유람했던 사찰은 금강산의 묘향사, 보은사(報恩寺), 청룡산(靑龍山)의 암자, 오대산, 청심암(淸心庵), 쌍계사(雙溪寺), 상왕사(象王寺), 성암사(聖巖寺), 정자사(正慈寺), 청평사(淸平寺), 두타사(頭陀寺) 등이다.

그와 교류했던 승려로는 △금강산의 승려, 휘상인(輝上人)·진일상인(眞一上人) △보은사의

도심(報恩寺僧法心) △청룡산의 경천상인(靑龍山上人敬天)·벽안대사(碧岩大師) △오대산의 법장상인(五臺山僧 法藏上人)·현철상인(玄哲上人)·처림상인(處林上人)·탁영상인(卓靈上人)·두타사해상인(頭陀寺海上人)·혜정상인(惠正上人) 등이 있다.

특히 벽안대사(1575~1660)와 교류했던 흔적은 그가 벽안대사에게 준 ‘증벽암대사(贈碧岩大師)’를 통해 드러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월과 소요가 모두 입적했으니(松月兼羊皆入寂) 자비로운 배로 다시 백성을 구제할 수 없네(慈航無復濟蒼生) 조사의 도리 지금 쇠퇴 여부를 말하지 말라(休言祖道今衰否) 우리 대사의 법인이 가장 밝으니(最是吾師法印明)

벽안대사는 원래 보은 출신으로 8도도총섭이 되어 남한산성의 축성을 감독했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수천 명의 승병을 모집, 복직했던 수행자였다. 따라서 김득신은 법문삼결(法門三傑)로 칭송되었던 송월, 소요가 모두 입적했다하더라도 수행력이 높은 벽안대사가 있기에 다시 창생(蒼生)을 구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러낸 것이다.

그의 호는 백곡, 귀석산인이다. 그의 저술로는 <백곡집(栢谷集)>과 <종남총지(終南叢志)>, <종남쇄언(終南碎言)>이 있고 <한백 장군전(韓伯將軍傳)>과 <정풍 선생전(淸風先生傳)> 같은 소설을 남겼다.



박동준 동아시아문화연구소장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 사용 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X 세로5.7cm X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배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 손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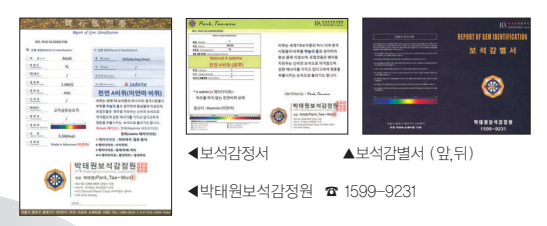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현의 삶을 위한 기도
- 1. 불자의 기도
- 2. 이혼의 기도
- 3. 기쁜 평안을 위한 기도
- 4. 발마 편우를 위한 기도
- 5. 명상음악
-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8. 생일의 기도
- 9. 장영 염불
- 10. 반세월 기도
-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2. 비소로 올다가
- 13. 사랑을 쓸때는
- 14. 여름 별래는 겨울이 있을을
-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 18. 향수를 바르면
- 19. 나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방광스님의 염불시리즈
- 21. 광명진언 1
- 22. 광명진언 2
- 23. 광명진언 3
- 24. 지경공덕분
- 25. 예불문
- 26. 아산 해원선사 발원문
- 27. 천수경
- 28. 비아살경
- 29. 회양경 약한계
- 30. 사동사경
- 31. 창석곡
- 32. 우리말 번아성경
- 33. 관음경
- 찬불가
- 34. 삼귀의
- 35. 찬불합니다
- 36. 예불가
- 37. 찬불가
- 38. 불교의 노래
- 39. 새 발우 찬영가
-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 41. 부처님께 마칩니다
- 42. 사동사경 노래
- 43. 산회가
- 44. 관세음의 노래
- 45. 보현행원
- 46. 갈로법을 전하자
- 47. 초파일의 노래
- 48. 마하반야의 노래
- 49. 심오제단 노래
-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 51. 홀로 피는 연꽃
- 52. 관세음보살 1인창
- 53. 관세음보살 2인창
- 54. 개경계
- 55. 이상정명본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격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향균성 85%
 - ▶ 대장균 감소를 83.6% ▶ 녹농균 감소를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특성을 증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격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